

## “선교는 축복입니다” (에콰도르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이영찬 목사(OC 오픈도어교회)

2024 년 뜨거운 여름, 남미 에콰도르로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공동체'를 꿈꾸며 작은 헌신을 실천해 온 저희들은 온 교회가 하나되어 단기 선교를 실시했습니다. 처음 가는 지역이라 지난 4 월 답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한국 JDM(Jesus disciple Movement)소속으로 남미에서 30 년간 선교 사역을 해 오신 김금찬, 미자선교사의 사역지를 방문하여 church planting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에콰도르와 페루 국경 지역의 작은 섬 Costarica (중미의 국가가 아닌 섬)가 사역자입니다.

늘 그렇듯이 선교는 우리의 작은 헌신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 하나님의 크심이 증거되는 사역입니다. 우리들의 희미하고 불확실한 인생의 그림이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려지는 은혜의 현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지를 정하고 선교 단원들을 모집하고 Fundraising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6 번에 걸친 선교훈련은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훈련 막판에 우연치 않게 보내주신 남미 지역 GP 선교사와 local 에 있는 Hispani 사역자를 통해서 훈련의 화룡점정(畫龍點睛)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선교는 모두에게 축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1. 우리는 한 팀 - 이렇게도 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에콰도르 단기선교에 11 명의 팀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광고하여 지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84 세의 장로님에서부터 21 살 대학생, 그리고 Taiwanese 형제가 참여했습니다. '이런 선교팀이 과연 하나되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동 시간만 20 시간(비행기 10 시간, 자동차 5 시간, 배 1 시간), 비행기 스케줄 상, 새벽에 출발하여 하루 종일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섬의 특수성 (만조 시간에만 배를 탈 수 있음)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야간에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바다를 작은 배에 사람과 짐을 가득 싣고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피곤함과 더위, 그리고 환경적인 불편함들이 많았지만 성령으로 하나된

팀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환상의 드림팀이 되었습니다.

Age gap 과 language gap, cultural difference 들이 오히려 하나됨을 강화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84 세의 장로님을 위해서 젊은 형제 자매들이 밀착 경호팀을 구성하여 body guard 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장로님은 단기팀에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고 늘 뒤에서 기도로 중보해 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은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과 은혜를 받았노라 고백하고 장로님은 젊은이들의 헌신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한 공동체로 강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은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고 릴레이 금식기도로 동참을 했습니다. 선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지만 아무나가 아닌, 헌신되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누구나'가 아니라 '헌신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드러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 2. 선교는 장애물 경기 - 장애물이 많을수록 스피드가 넘칩니다.

단기선교 기간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7 월 26~8 월 11 일). 세계의 이목이 프랑스 파리로 모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에콰도르의 작은 섬(인구 500 여명) 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huddle)가 있습니다(여자 100m, 남자 110m, 400m, 3000m 장애물). 이번에 파리 올림픽 여자 400m 허들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50 초 37)으로 금메달을 딴 시드니 매클로플린 (Sydney McLaughlin)선수는 자신에 대해 철저한 귀한 신앙의 소유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뛰어도 힘든 거리를 장애물을 넘어가며 달립니다. 장애물 경기를 볼 때마다 '왜 장애물을 놓고 경기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달리기보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변수도 생기고 더 박진감 넘치는 반전으로 관중들을 열광시킵니다.

선교에도 많은 변수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Expect the unexpectedness'라는 말을 되뇌이곤 합니다. 가장 큰 장애는 역시 언어였습니다. 미국은 스페인어를 거의 공식 언어로 사용할 만큼 히스패닉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California 는 40%로 백인 인구를 앞지름). 하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배움과 노력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소통을 해야만 했습니다. 문화와 사회 환경적인 장애물들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느 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피상적으로는 Catholic 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변질된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섬의 입구인 선착장 바로 앞에 크게 세워놓은 베드로상(큰 물고기를 손에 잡고 있는 베드로 상)과 Divino Nino(기괴하게 생긴 아기 예수)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보다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는 베드로와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VB 를 진행하려는 시간에 마을의 Catholic 지도자가 교리 공부를 시킨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소집하는 일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저녁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극적으로 전기가 들어와서 원색적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장애물과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야 스릴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금메달보다 더 크고 귀하신 분입니다.

### **3. 선교는 축복입니다. - 그래도 참여해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선교에 동참한 형제 자매들의 주옥같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연약함, 무가치함, 무지함을 깨닫는 반면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멋진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노라 고백하였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를 깨닫고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섬마을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약품도 나눕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복음을 듣지 않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떠난 지금도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단기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형제, 자매가 달라졌어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고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교는 참으로 하늘의 복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습니다. 본 사람만이 말 할 수 있습니다. 맛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여 한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